

미국이 보낸 '에이태킴스' 우크라전 판도 바꾸나

NYT, 신형 장거리 버전 지난주 제공 러시아군 주둔지 공격에 이미 사용 사거리 300km로 게임체인저 가능성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신형 장거리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를 사용해 이미 러시아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이태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무기가 될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지난주 장거리 에이태킴스 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보냈고,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7일 이를 사용해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비행장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크림반도 북부 잔코이의 러시아 비행장을 공격해 S-400 대공미사일 발사대 4개, 레이더 장비 3개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잔코이의 러

시아 비행장이 장거리 에이태킴스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또 23일 밤 이 장거리 미사일로 자포리자주의 항구도시 베르스크에 주둔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고 이 당국자는 NYT에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중순 장거리 미사일 100기 이상과 집속탄 버전 에이태킴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결정을 비밀리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작년 후반기 에이태킴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이는 중거리

용인 구형 버전이었고, 이번에 제공된 것은 사거리가 300km에 이르는 신형 장거리 버전이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뿐 아니라 돈바스와 다른 해안지역 등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전장 상황을 바꿀 무기의 하나로 기대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에 새로 도입된 장거리 에이태킴스 미사일(ATACM-300)이 이번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표현했다.

미·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결의안 놓고 격돌

유엔 안보리서 러시아 거부권 행사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만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24일(현지시간)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위성요격용 핵무기(우주 핵무기)의 우주 배치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논의한 결과 전체 이사국(비상임 포함)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처리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다른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에서 초안을 만들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판했으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연합스



상하이 예원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와 함께 상하이 예원을 걷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기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진찍 국가주석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연합스

군사 전용 가능한 범용제품 일 정부, 수출 규제 강화한다

일본 정부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제품이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이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이 민생용품의 군사 전용을 가속하고 있는 것이 수출규제 강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센서, 모터 등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큰 물품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스

판다, 고향 중국 쓰촨성 청두시 문화관광 담당 명예국장 임명

'판다의 고향'으로 불리는 중국 쓰촨성 성도 청두시가 암컷 자이언트 판다를 문화관광 담당 부서의 명예국장으로 임명했다.

25일 양성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청두시 문화방송여유(관광)국은 전날 공

식 더우인(抖音·Douyin)계정을 통해 45개월(3년 6개월) 된 암컷 판다 화화(花花)를 문화관광국 명예국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자이언트 판다의 30% 이상이 서식하고 있어 '판다의 고향'으로 불리는 쓰촨성과 청두시 당국이 판다를 매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스

공모주제

- 장병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주제

공모부문

구분	규격
UCC (드라마, 광고, 패러디 등 장르 자유)	3분 이내 wmv, mp4 등 동영상 파일 - 크기 640 x 480px 이상 / 용량 250MB 이내

접수방법

- * 인터넷 메일 : lawjh25@korea.kr
- * 인터넷 웹메일 : jh25@army.mil

- ▶ 신청서 및 동영상 제출 후 유선 확인 요망
- ▶ 출품작과 참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참가 신청서 미제출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 메일 제목을 "2024년 병영인권 콘텐츠 공모전 신청서(계급, 이름)"로 작성하여 접수

공모대상

육군 장병 및 군무원

접수 및 발표 일정

'24. 4. 22.(월) ~ 5. 31.(금) / 6월 발표

시상내용

구분	대상	상장	상금
최우수상	1편	육군 참모총장	70만원
우수상	1편	육군 참모총장	50만원
장려상	4편	육군 인사참모부장	각 30만원
입선	4편	육군 법무실장	각 20만원

문의

육군본부 인권정책과(담당자 : 인권교육장교)

☎ (군) 960-1773 (일반) 042-550-1773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육군본부